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 1차 단체교섭 보고>

이제 시작이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적폐 정부시절 잘못된 부분들 복원되는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서창석 병원장 “올해도 서로 협력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조합원들의 관심속에 진행된 단체교섭, 병원은 시작부터 교섭원칙 개악 시도

7월 31일(화) 3시, 시계탑 제 1회의실에서 2018년 1차 단체교섭 및 상견례가 진행되었다. 이날 상견례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조합원들이 참관을 하여 교섭과 안건 진행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많은 조합원들이 모여들었다.

단체교섭은 시작했지만 교섭원칙 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황 이였다. 그리고 서창석 병원장은 “주 2회 교섭은 너무 많다.”며 예년 수준의 주 2회 단체교섭을 주 1회 단체교섭으로 교섭원칙 개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준식 노조위원장은 “타 사업장의 경우 교섭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오히려 사측이 교섭 횟수를 늘리자고 요구하는 것이 관례인데 서울대병원은 특이하다.”며 병원의 교섭해태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결국, 병원은 전례대로 주 2회 단체교섭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하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 위반 건

서울대병원분회는 지난해 파업을 통해 병원이 고용한 직접고용 비정규직 뿐 만 아니라 간접고용(외주·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합의를 했다. 합의 내용은 「병원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승계(전환채용)하되, 정규직 전환방식은 노사·전문가협의기구에서 결정하고, 동 협의기구는 2018년 1/4분기내... 구성한다.」 그리고 노동자 대표단은 「모집공고에 따른 신청자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하고 병원이 부당하게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합의했다. 그러나 병원은 노사합의를 지키지 않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노동자 대표단에 노동조합 간부가 포함되어 있다며 노사전문가협의기구 운영 자체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대병원이 위반한 노사합의를 비정규직 청소노동자가 파업으로 지켜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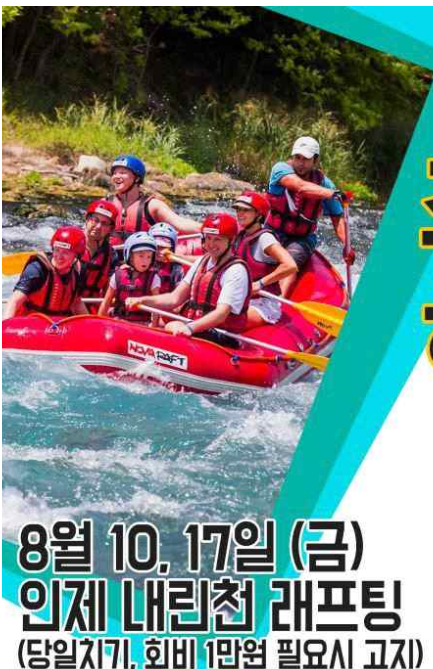
이에 분노한 청소노동자들은 결국, 서울대병원분회 1차 단체교섭 일정과 같은 7월 31일 경고파업을 결정하였고 단체교섭이 열린 같은 시간 시계탑 밖에서 노사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파업투쟁을 진행했다. 서울대병원분회도 단체교섭 자리에서 노사합의 이행과 청소노동자들의 파업 해결을 위해 노사전문가협의기구 개최를 요구했다. 계속된 교섭단의 항의와 대표자 면담을 통해 서창석 병원장은 노동부가 제안했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노사전문가협의체를 열어 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관련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살인적인 폭염 속에 시계탑 앞에서 긴 시간 집회를 이어가며 단체교섭 소식을 기다렸던 청소노동자 조합원들은 정규직 전환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는 교섭소식에 모두가 환호성 이였다. 마침내, 정규직 노동자가 파업으로 쟁취한 정규직전환 노사합의를 비정규직 청소노동자가 파업으로 지켜냈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이다. 앞으로 남은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닌 정규직 노동자가 함께 하는 공동투쟁이다.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병원 2018년 임단투는 이제 시작이다.

제 2차 단체교섭 개최 안내

일시 : 8월 7일(화), 15시
장소 : 시계탑 제 1회의실
안건 : 의료공공성, 제 2장 조합활동, 제 3장 인사
현안 : 비정규직 정규직화, 직종전환 등.



조합원 하루교육

가족과 함께하는 조합원 하루교육

- 프로그램 : 인제 내린천 래프팅.
- 대상 및 인원 : 만 12세 이상 조합원 가족 2인 동반 가능.
- 비용 : 조합원 1만원, 동반 가족은 자기부담 (교통비 제외)

※ 버스 또는 차량 탑승 인원사정으로 선착순 마감.

8월 10, 17일 (금)
인제 내린천 래프팅
(당일치기, 회비 1만원 필요시 고지)

노조가입! 이젠 카카오톡으로 하세요!

웹 주소 : bit.ly/서울대병원노조가입

1.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네모버튼을 누르고
2. 스캐너를 QR코드에 갖다대면 끝!

